

대정 호근므르

정좌수의 부인이

남펜네 부배간 정리는

아니무어도 유태를 7저

아방눈에 굴리 나고

어멍눈에 시찌 나,

귀양정배를 보내멍

“어서 느 가고픈대로 가라”

흐난,

“어딜 가린!” 흐연

나산 게,

검은오름 득신믈들에

어질 흐연,

애긴 난는 게

훈술머지로

흐나, 두개, 일곱 갓 낳고,

그 애길 업을 수라 엇어,

진군지에 간 꼭 걸언

업고 안고 걸루고 흐난,

이젠, 일곱 애길

질룰 수라 엇어,

“어떻 질루린!” 흐연,

“믈을 믈을마다

만민죵손에

서천제민 공연을 받자”

흐연,

민 츠지, 믈을 츠지,

호적 찌지, 장적 찌지,
인물도생책 찌지 하여,
“큰 아들랑
어딜, 이 애길 보내리?”
생각하던,
괴수풀 삼백관 산신대왕으로
보내고,
셋아들은 맹월 종구실
고완이 본향으로 찌질 보내고,
말쑥아들은 영역하고 똑똑하여
요왕황조 요왕태조로 보내여
용궁을 찌지하되,
인간백성이
아이 어른을 골리지 못하니
장적찌지 인물 도성책 찌질
하고,
맹월 삼문 읍중 상교 상청찌지
호적문을 찌지,
양반, 중인, 하인을 다 골리잡은
문세를 잡고,
안으드레 죽은또 니켓 아들은
올라사민 하원당
처가부처는 상가왓당 술일한집.
죽은 말쑥아들은
넙개 큰당알로 좌정한 죽일한집.
이 할으방은,
훈디 사는 할망이
니발탄 걸 먹으난
“추접하다. 하여,

손두물 머리로 가 좌정하니
용궁또롭서
가는 선, 오는 선 찰지하고.
그영하니 이 할망은
널개 큰당한집이 됩네다.
“큰돌애긴 어딜 가린?” 하니,
당멸 육꿀을 찰지하니
허릿궁할망으로 좌정하고,
호적 장적 인물 도성책
찰지헌 토지본향.
셋돌애긴 상명 느지리
캐인터 찰지하고,
죽은돌은 가지갈란 조숫물,
낙천은 매앗인발,
매죽은돌은 가지갈라
한개 죽은당에 좌정하였수다.

제일 매 3일, 7일, 13일, 17일,
23일, 27일.

<한경면 고산리 여무 71세 김기연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557-559.